

완전한 새언약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히브리서- 레위기 16:34, 히브리서 9:10-12

정윤돈 목사님

* **레16:34** 이는 너희를 위하여 일 년에 한 번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한 영원한 규례가 되리니라

* **히9:10-12**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말려 둔 것이나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준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하신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고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가장 가치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 성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성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찬양과 모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영육 간에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인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후대를 위해서 올인하며 생명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에도 어려운 세상과 삶 속에서 상상하지 못하고 이해 못하고 견디지 못할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습니까. 오늘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는 진정한 절대계획과 미션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고 성취될 구체적인 레마와 언약의 말씀을 찾아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매년 한 번 전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지 성소에 들어갔다. 이러한 율법이 옛언약이다. 그러나 오늘 보인 개혁할 때까지 예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겠다. 종교개혁도 원래 하나님이 계획했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제사에 빠져서 예수님이 오실 때 오히려 거부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천국 성소에 입성하셨다. 이것이 새언약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셨다. 본문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대제사장에게 일 년에 한 번씩 전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라고 하셨다. 그렇게 할 때 1년 동안의 죄가 사하여지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막이 찢어졌다. 그 때부터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과거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고 제사도 드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게 길이 막혀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대제사장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직접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성경을 보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제사장도 제사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렸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두렵고, 죽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두려워서 주님 앞에 못 나갔고 성경 안에 그런 내용이 많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 과거에는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신분이 완전 세탁되었다. 마귀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그리스도 덕분에 죄 없는 자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을 믿길 바란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신분과 권세를 당당히 누려야 한다.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자녀의 요구를 들어준다. 육신의 부모님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해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다. 시간표에 맞고 적당하던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힘이 강해야 한다. 가롯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문제는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예수님 믿어도 안 도와줄거야. 나는 안돼, 우리 집안은 안돼, 이런 생각으로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충만으로 잘못된 생각을 끊어버려야 한다. 그래서 예배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풍성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이다. 어차피 이 세상은 문제와 고통과 질병, 경제, 부부, 자녀, 교회, 국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문제가 그대로 있고 더 커져도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새언약, 더 큰 언약, 그리고 예수 안에서 미래에 백년, 천년의 응답이 우리에게 보장되고 약속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이 신약과 구약이다. 성경은 전체가 약속이다. 믿지 않으면 재앙과 저주 받고 노예, 포로, 속국된다고 말씀해주셨다. 계약이다. 계약을 위반하면 안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것

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법적으로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이 문제, 저 문제 고민하는데 법적으로 그 문제를 고민 안 해도 되는 신분 속에 있음을 믿어라. 여러분이 가질 것은 말씀,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변동되고 개혁이 되어야 한다. 지금 AI를 활용해서 약관, 법조문 등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직업에 변화가 많을 것이다. 예상이 다 틀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변동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이 시대에 맞는 변증이 필요한 것이다. AI에게 진화와 창조를 물으면 진화론 자료가 많아 진화를 이야기한다. 더 깊이 대화하다보면 결국 그것은 믿음의 범주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성으로 평가할 수 없다. 우주의 끝을 알 수 없듯이 과학으로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다. 지금 시대가 변증이나 논증이 다른 시대에 와 있는 것이다. 요즘은 대학에서도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하라고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는 활용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활용을 안하면 뒤처진다. 개혁시대에 개혁안하면 안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새롭게 복음으로 개혁하고, 루터가 한 개혁의 그 흐름을 모르면 영육 간에 뒤처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미래를 앞당기기를 바란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시간이 남고 좋다. 활용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는다. 앞으로 재산관리도 에이전트와 연결하면 다 해줄 것이다. 아무리 알려줘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뒤처지는 것이다. 항상 성경을 읽는 사람이 시대를 앞서갔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에 맞게 개혁되어야 한다. 우리가 가진 한계있는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진리와 논리와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주시기를 바라겠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고 수준이 낮게 생각했다. 천 년 전에는 하나님은 존재하고 전지전능하신 것을 다 믿는데, 어떤 소수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할까를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몇 가지 변증을 했다. 너희는 신이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면 진짜 신이 존재한다고 하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신이 존재한다고 다 생각했기 때문에, 진짜 완벽한 신이 존재하지 않았냐고 신 존재 증명을 했던 것이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기에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원동자론이라는 것이다. 여러분 조상을 꼭 따라가면 최초의 사람이 있었을 것인데 그것을 만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최초의 원인을 제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불교는 공사상으로 믿는 것이고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것인 믿음이다. 진화론을 믿는 것도 믿음이다. 증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엘로힘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영원하고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분이 모든 것의 시작이시다. 목적론이 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어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믿어라. 영원한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찾아기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중요한 천명과 소명과 사명 없이 만들지 않으셨다. 나에게 고유한 영세 전에 계획하신 큰 뜻이 있어서 여러분 가정과 직장 위에 세우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도덕론적 증명이 있다. 인간만 가진 양심과 도덕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 양심이 있는 것이다. 진심은 가지고 있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못된 인간도 윤리, 도덕이 없고 그런 것은 안다. 또 체벌은 수학으로 증명하였다. 현대 물리학의 양자역학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존재와 성삼위일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다 믿는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에게는 문제가 있고 죽고 병들고 사고 난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 말씀의 힘, 하나님의 영적인 도우심, 기도, 찬양을 통해 영을 살리지 않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세상적인 고난을 이길 수 없다. 달리 말하면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귀중한 통로이다. 그 때 하나님을 찾았다. 너무 이해 안되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을 누려라. 그 정도로 성령충만하고 말씀충만하고 기도충만하기를 축원드린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함께 있는 예배가 중요하다. 예배는 영을 충만하게 하고 경결하게 하는 시간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새롭게 되고, 현장을 살려라.

오늘은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제사제도와 제사장, 율법, 성막, 선지자보다 뛰어난 참된 구원자이심을 선포한다. 예수님은 단순한 교사나 예언자가 아니라, 하늘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신 참 제사장이시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은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지금도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은 종교주의,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해시키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과 그리스도를 이해시키기 위한 위대한 말씀이며 복음적인 변증서이다.

1. 큰 첫 번째에서는 히브리서 각 장의 핵심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1) 1장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지자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천사보다 하등한 존재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 분은 왕 중의 왕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다.

(2) 2장에서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유흥을 다 이해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

(3) 3장에서는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신약성경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 이사야서 53장의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주면 메시아가 예수님이신 것을 알고 믿게 된다. 마지막 때는 유대인이 복음화되는 때이다.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사야서 53장은 성인이 되기 전에 말라 되고 있는 분라고 있다고 하더라.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구약성경에도 다 설명해주었는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변증한 것

이 히브리서이다. 히브리서는 말세지말에 유대인 복음화에 중요한 키가 되는 성경이다. 또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확실하게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그 분이 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모세는 모두가 존경하는 지도자지만 예수님이 그 본보다 뛰어난 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모세가 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을 복수로 지칭하고 있다. 즉 모세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세가 지칭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4) 4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가나안 땅도 안식일도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한다. 오직 '큰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이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진정한 안식의 주인이시다. 모든 염려 주님께 맡길 때 참된 안식과 축복이 온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라.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능력있는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린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그 일을 위해 필요한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다.

(5) 5장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6) 6장에서는 도의 초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도 믿음이 그대로이면 안 된다. 완전한 곳으로 가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을 체험하라. 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당연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게 어려우면 이상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전도가 당연한 것이 되는 것이다. 안되는 것을 뛰어넘어버려라.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있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응답이 온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믿으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받게 된다. 그 믿음의 씨를 지금 뿌려야 한다.

(7)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도 살렐 왕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대제사장임을 변증하고 있다. 멜기세덱은 바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렐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렐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질 중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8)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언약 즉 새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라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새언약의 의미에 대하여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율법)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은 구약의 낡아진 언약이 아닌 새언약이시다.

(9) 9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성소로 들어가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10) 10장에서는 그리스도 희생의 완전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이제 온전한 새언약이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11) 11장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한 구약성경의 인물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구약의 사람들도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 받고 축복 받았다.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다. 그만 고생하고 진짜 믿어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탕지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래야 그 복을 다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12) 12장에서는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어려움을 겪더라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징계를 준다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에 보면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부족하면 어려움과 고통이 있어야 한다. 그 때 원망하고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간단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

(13) 1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교훈들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하고 있다.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절대목표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면에서 흠이 없는 온전한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게 최후적인 삶의 목표이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으로 히브리서는 끝나고 있다.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2. 큰 두 번째에서는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는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다.

(1)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은 참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중간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중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 그것을 사탄이 이용해서 육신중심으로 살게 만들고 있다. 우리를 속이는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① 예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오신 참된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고통, 슬픔, 유혹, 연약함을 친히 경험하시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죄 없으신 삶을 사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② 이 예수님의 죽음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승리였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간을 두려움과 죄의 사슬로 묶어 놓았던 죽음의 권세, 곧 마귀의 힘을 완전히 무너뜨리셨다. 이제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죄책감으로 정죄할 수 없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정죄를 이기고, 죽음조차도 꺾으신 승리의 표이다.

③ 예수님은 죽음의 두려움에 묶여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처럼 되셨고, 우리 대신 죽으셨다. 그분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사방을 꺾으신 영원한 승리이다.

(2) 두 번째로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은 참제사장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9장 10절에서 12절 중간에 보면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 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①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며, 진짜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 있다.

② 예수님은 하늘성소로 들어가신 참 제사장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처럼 사람 손으로 만든 성막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온전한 성소,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다.

③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일지라도 참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 있다.

(3) 다음으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며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보좌 앞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현장에는 변증을 통해 돌아올 수 있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또한 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에 속지 않도록 정리가 되어있어야 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문제가 온 것을 알고 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 분명히 응답을 주실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정리 안 되어있으면 문제가 오면 교회 떠난다. 여러분부터 믿음이 변증으로 정리되어있어야 한다. 나 스스로를 이해시키고 전도를 하고 믿음을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변증과 논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뛰어 넘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믿게 된 것이다.

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씻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담대한 자녀가 되었다. 예수님의 피는 죄의 장벽을 허물며,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는 사랑의 문이 되었다.

② 예수님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벽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증거였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신 것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살아 있는 길을 열기 위한 희생이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멀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그분과 직접 교제하며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③ 예수님은 우리의 참선지자이시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용서와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예수님은 단지 길을 보여주신 분이 아니라, 그 길 자체이시다.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기도, 찬양, 예배는 예수님의 피 위에 세워진 새언약의 예배이다. 우리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지, 예수님의 보혈은 여전히 유효하며,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를 덮고 있다.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며 열어주신 길은 지금도 우리에게 열린 은혜의 길이다. 우리가 연약해도, 실패해도, 주님의 피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오늘 이 시간, 그 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란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율법과 제사를 완성하신 새 언약이시고 참왕, 참제사장, 참선지자이신 그리스도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히브리서를 통해서 완전한 새언약이신 그리스도를 정리할 수 있는 은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발전하는 시대에 맞는 개혁을 할 수 있는 말씀의 정리와 논리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변증을 가지고 현장에 많은 생명을 살리고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